

‘파격 베드신’ 송혜교 시청률 8%...전지현과 각축

(SBS ‘지금 헤어지는중입니다’)

(tvN ‘지리산’ 시청률 7.9%)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의 송혜교, tvN ‘지리산’의 전지현, tvN ‘해피니스’의 한효주, MBC ‘웃소매 붉은 끝동’의 이세영(왼쪽부터)이 주말 안방극장에서 치열한 시청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SBS·tvN·MBC

‘지혜중’ 치열한 패션의 세계 그려 ‘지리산’ 오컬트적 요소 흥미 반감 한효주 ‘해피니스’ 참신한 소재 호평 이세영 ‘웃소매...’ 시청률 5.6% 선전

전지현 주연 tvN ‘지리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효주의 tvN ‘해피니스’, 이세영의 MBC ‘웃소매 붉은 끝동’도 각각 좀비물과 사극의 독특한 매력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있지만,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커리어우먼을 다루는 다른 드라마들과 다르지 않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8%대 시청률을 유지해온 ‘지리산’은 ‘지혜중’과 편성이 겹친 13일 7.9%로 소폭 하락했다.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드라마는 지리산국립공원 레인저 전지현이 의문의 연쇄살인사건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점차 스릴러의 재미가 커지면서 시청률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레인저 주지훈의 ‘생명’이 등장하는 등 오컬트 요소가 낯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극중 감염병 확산세,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을 현실적으로 그린 덕분이다. 방영시간이 밤 10시 40분대로 비교적 늦지만, 잔인하면서도 실감나는 장면을 살린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으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웃소매 붉은 끝동’은 톱스타들의 경쟁 틈새에서 5.6%의 시청률을 찍어 뜻밖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궁녀 이세영과 정조 이준호의 궁중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는 최근 퓨전사극 열풍을 타고 국내외에서 시선을 받고 있다.

●송혜교 VS 전지현, 승자는?

‘먼저 웃은 송혜교, 정체 중인 전지현...’ 주말 안방극장 대전의 승자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영애, 전지현, 한효주 등 톱스타들이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경쟁에 나선 가운데 뒤늦게 합류한 송혜교가 승기를 잡았다. 12일부터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지혜중)를 선보이며 ‘19금’의 높은 수위로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주말 안방극장에서 1위를 차지해온

송혜교가 간발의 차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다. 패션회사 디자인팀장 역할을 맡아 화려한 패션의 세계를 그리면서 12일 6.4%(닐슨코리아) 시청률을 2회째인 13일 8%까지 끌어올렸다. 위기 상황을 노련하게 헤쳐 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극중 연하의 포토그래퍼 장기용과 수위 높은 베드신도 소화했다. 드라마는 초반부터 송혜교의 파격 연기로 화제몰이를 하고

●‘독심’ 한효주 ‘복병’ 이세영

‘해피니스’도 3%대의 높지 않은 시청률로 고전 중이지만, 참신한 이야기에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세계서 인정받는 ‘K예능’

‘복면가왕’ 박원우 작가, FAE와 퍼스트룩 계약 英 매체 “MBC ‘레고 마스터즈’ 획기적인 도전” ‘슬기로운 산촌생활’ 중국서 10월 4주 연속 1위

‘케이(K) 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예능 콘텐츠도 다양한 시도로 새롭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MBC ‘복면가왕’의 박원우 작가는 미국 폭스채널 계열 제작사인 FAE와 이례적으로 ‘퍼스트 룩’(first-look deal)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작가가 기획·개발하는 작품은 FAE와 가장 먼저 제작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FAE 측은 “박 작가의 작품 개발 능력”과 “창조적인 천재성”을 높게 평가했다. ‘복면가왕’은 2015년 4월 방영 이후 현재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50여개국에 포맷을 수출했다.

앞서 ‘복면가왕’을 히트시킨 MBC는 영국 투스데이 차일드 TV가 2017년 방영해 미국, 프랑스 등 15개국에서 리메이크된 ‘레고 마스터즈’의 포맷을 사들여 내년 상반기 방영을 준비 중이다. 참가자들이 블록 장난감만 들기 경쟁을 하는 내용이다.

영국 미디어전문 매체 C21은 최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 지상파 방송사의 첫 해외 ‘언스크립티드 포맷’(Unscripted Format·각본이나 형식이 없는 포맷)으로, 획기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의 유명 예능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는 한국 제작진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슬기로운 산촌생활’도 제작진의 연출력에 힘입어 중국에서도 화제다. 9월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주인공들이 그대로 출연하는 독특한 스펠오프 포맷으로 중국 최대 리빙사이트인 더우반의 ‘해외 호평 예능 순위’에서 10월 한 달간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향수’ 부른 가수 이동원 식도암으로 별세



이동원

‘향수’를 부른 유명한 이동원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가요계에 따르면 이동원은 앓고 있던 식도암이 악화해 이날 새벽 4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이동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인 전유성이 있는 전북 남원으로 옮겨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전유성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 데뷔한 이동원은 1989년 ‘향수’가 수록된 앨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를 발매했다. 최근 투병 사실을 알게 된 방송인 정덕화와 가수 조영남 등은 이동원을 위한 후원 음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별세하면서 추모하는 지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음악회에는 조영남, 김도환, 임희숙, 윤형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15호, 발인은 16일 오전 11시 30분.

프로포폴 상승투약 취소 KBS서 출연금지



휘성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휘성이 KBS에서 출연금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은 5월 KBS로부터 출연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배성우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도 1월 한시적 방송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학교 2021’ 주연 김요한 코로나19 확진



김요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의 주연인 김요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첫 방송도 17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14일 제작진은 “보조 출연자 중 한 명이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체 스태프와 출연진을 상대로 관련 검사를 한 결과 김요한이 양성을,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편집 | 안도영·유진희 기자

윤계상·이종석 “2030 생큐”

〈유체이탈자〉 〈데시벨〉

나란히 투자프로젝트 조기 마감 관객 투자자 65%가 2030세대 다양한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

배우 윤계상과 이종석이 20·30대의 힘을 등에 업고 흥행 기대감을 키운다. 주연한 신작 영화의 일부 제작비를 일반 관객으로부터 투자받은 가운데 영화의 주 소비층인 20·30대의 참여를 대거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14일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 플랫폼 펀더풀에 따르면 윤계상이 박용우와 함께 주연해 24일 개봉하는 ‘유체이탈자’(감독 윤재궁·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이종석과 김래원이 내년 여름 선보일 ‘데시벨’(감독 황인호·제작 이스트로립시노펙스)의 일부 제작비 투자 프로젝트

가 조기 마감됐다. ‘유체이탈자’는 11일 투자자 모집을 시작해 단 하루 만에 목표 금액 2억원을 채우며 마감했다. 이에 12일 최종 3억원으로 금액을 늘린 가운데 14일 현재까지 87%인 2억6200만원을 모았다. ‘데시벨’도 10월29일 프로젝트를 시작한 최근 목표 금액 1억원을 소폭 초과 모집했다.

이 같은 열기는 ‘범죄도시’를 통해 흥행 배우로 거듭난 윤계상의 신작과 팬덤이 두터운 이종석이 올해 1월 제대한 뒤 선보일 복귀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반 관객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20대와 30대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데시벨’의 경우 내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별다른 사전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눈길을 끈다.

펀더풀 윤성욱 대표는 “무엇보다 배우



배우 윤계상과 이종석(위부터)이 20·30대의 참여를 끌어내며 각각 주연영화 ‘유체이탈자’와 ‘데시벨’의 제작비 투자를 받는데 성공했다. 사진제공 | 에이비엔터테인먼트·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셀

들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본다”면서 “감염병 확산 사태로 시장이 침체됐지만

한국영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 투자자의 6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영화의 주 소비층이 극장의 주 관객인 이들 세대가 배우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 세대가 다양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점에서 배경을 찾는 시각도 없지 않다. 디지털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관련 호불호와 취향이 뚜렷한 이들 세대가 직접적인 투자자까지 나서는 것이다. 콘텐츠 소비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펀더풀은 누적 200만 관객이 손익분기점이었던 영화 ‘싱크홀’에 대해서도 일반 관객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냈다. 수익률에 따라 관련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유체이탈자’와 ‘데시벨’의 손익분기점은 극장 관객 기준 누적 139만, 240만 관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의 아줌마들 美 안방 노크

마영신 작가의 만화 ‘엄마들’ 미국서 TV시리즈로 제작기로 자신을 찾아가는 도전 이야기

힘겨운 일상의 부조리와 현실적 욕망에 놓인 한국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TV시리즈로 만들어진다.

14일 미국 매체 데드라인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마영신 작가의 2015년 만화 ‘엄마들’이 미국 제작사 플레이그라

운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지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를 만난다. ‘엄마들’은 ‘만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미국 히비상 수상작이다.

‘엄마들’은 50대 세 중년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남편이 남긴 도박 빚에 시달린 끝에 노후 걱정에 막막해진 ‘엄마’, 낯선 남성의 말 건넨에 설레는 ‘엄마’, 해고 위기에 놓인 ‘엄마’ 등 중년여성들의 쉽지 않은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데드라인은 “삶의 부당함에 고통당하는 이소



만화 ‘엄마들’ 표지

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에 대한 생각을 수첩에 적어달라

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다”면서 창작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임을 강조한 셈이다.

‘엄마들’이 미국 만화가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된 히비상을 수상하며 현지 TV시리즈화는 한국 콘텐츠의 또 다른 성과를 말해준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에서 관심을 키운 웹툰뿐 아니라 한국 출판문화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만화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그린 김금숙 작가의 ‘풀’에 2년 연속 히비상을 받았다. ‘엄마들’은 캐나다 출판을 통해 북미지역에서도 출간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